

“문화 자원·공공 교통망 결합 통해 상권 활성화를”

광주시의회 '구도심 공동화' 토론회
도시 집약적 개발 전략 세워야
日 도야마 현, 광주와 비슷
거점 집중형 콤팩트시티 구축

광주시 구도심 공동화 해법으로 문화자원과 공공교통망을 활용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구도심 공동화, 그 해법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구

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남승진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4명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선 정일성 총장로1·2·3가 상인회장과 주승일 총장상인회장, 이양섭 대인동 예술담길 번영회장,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총괄관이 나섰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승진 센터장은 일본 도야마 현 사례를 소개하며 콤팩트시티를 활용한 도심공동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콤팩트시티는 구도심 공동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도야마 현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중부의 한 지방도시다. 남 센터장에 따르면 당시 도야마 현은 △인구감소·고령화 △공공교통의 쇠퇴 △중심시가지의 매력상실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도야마 현은 도심공동화를 대응하기 위해 LRT(노면전차)노선을 개통했다. 노선 주변으로 상업·문화시설이 모여들어 콤팩트시티를 형성했고, 도야마 현은 전입 인구가 다시 늘어나 도심공동화를 해

결한 모델이 됐다.

남 센터장은 “도야마 현이 우리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우리도 LRT와 같은 공공교통망을 구도심에 구축해 교통을 중심으로 상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도심인 동명동과 양림동 등은 활용할 문화자원이 많다. 공공교통을 축으로 기존자원을 활용해 거점집중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다양한 도심공동화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일성 상인회장은 광주 거점 기업들과

시와 구가 협력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구도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시민들에게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 경차인 캐스퍼를 상품으로 내거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주승일 상인회장은 구역에 맞는 공동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주 회장은 “총장로 1~3가는 케이팝 거리 등을 조성하고, 4가는 패션의 거리와 혼수의 거리, 5가는 유렵처럼 광장이 있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美 H-MART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명품전

식품수출협회, 내달 2일까지

전남식품수출협회(회장 한문철)가 전남도의 지원으로 오는 4월2일까지 미국 H-MART 부에나팍점에서 전남 농수산물 식품 명품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H-MART는 1982년 뉴욕시 퀸스에 처음 개점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현재 미주 지역과 캐나다, 영국 등지에 105개 유통망을 갖춘 미국 최대 아시아 유통업체다.

유학생 및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뿐만 아니라 케이푸드(K-Food) 열풍으로 미국 현지인의 사랑까지 받는 곳으로 한국 쌀부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먹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Eat K-Food, Taste K-Culture!' 슬로건 아래 전남식품수출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행사참여를 희망하는 전남 도내 우수업체들과 협업체가 진행했다.

골든힐, 안복지한과, 미가식품, 고려전통식품, 다압매울, 오엠오, 좋은영농조합, 산들애, 가보팍스, 미성영어조합, 장흥표고 등 20여개 업체, 100여 품목이 판매된다. 수출금액은 25만불(한화 3억원)이다.

행사장을 찾는 고객이 One-Stop쇼핑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품 구색의 다양화에 힘쓰는 한편 간편식 상품 코너 운영으로 기존행사와 차별화를 꾀했다.

최황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군민들과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박종균 동구의원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 무료화를”

박종균(사진) 광주 동구의원은 28일 제2순환도로 학운IC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출퇴근 시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학운IC 통행료 부과로 많은 주민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며 “진입로가 협소해 요금소에서 잦은 지체로 출퇴근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운IC는 동구 주민뿐 아니라 가까운 남구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진입로가

협소한 데다 하이패스 없이 요금소 직원이 통행료를 징수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2순환도로 1구간에서 2구간까지 다른 진출입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데 유독 학운IC만 통행료를 받는다”며 “주민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보성 노동면,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대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 만들기 '우수 읍·면·동' 10개 기관 선정

전남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책은 지방자치 최일선 행정 책임기관인 읍·면·동 역할 강화를 통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보성 노동면, 최우수상은 광양 중마동과 해남 옥천면, 우수상은 순천 해룡면, 함평 월야면, 완도 고금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목포 부흥동, 여수 화정면, 담양 금성면, 함평 월야면이 영예를 안았다.

현장행정 우수읍·면·동선발은 시·군별 1개 우수읍면동을 추천받아 1차 서면, 2차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상에 선정된 보성 노동면은 '너와 내가 함께 키우고 나누는 행복'을 통해 15개

민간단체·봉사단체·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휴경지에 감자를 공동 재배해 기부하고, 선물꾸러미와 밀반찬 나눔, 안전돌봄사업 등을 추진, 소통하고 희망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선도했다고 평가받는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읍·면·동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수 읍·면·동을 지속 발굴해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동 사기 진작과 다양한 현장 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김영록 “영광 300만 탐방객 시대 열도록 적극 지원”

김지사 영광서 '도민과의 대화' '해안노을 관광지·지방도 확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8일 “영광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고, 전년 이상을 이어져 온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며 “칠산타워,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테마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영광군과 함께 전남도가 '영광 300만 탐방객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광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조성,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변화와 혁신, 탁월한 군정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민과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

는 강종만 영광군수, 박원중·오미화·장은영 도의원,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지역인사, 군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환영사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에서 전남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힘없는 열정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님을 모시고 군민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2년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전남도와 영광군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재정지원이 필요한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장애인 재활과 스포츠 수요증대에 따른 이용자 수요충족을 위해 추진되는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46억8000만원) 가운데 장애인 수영장(수중운동실) 건립 등

에 필요한 11억원에 대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영광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영광군의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영광 주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장종석 백수 지산2리 이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백수 해안도로의 관광명소화를 위해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을 건의했고, 이호천 가마미개발위원장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샤워실 신축', 정명수 영광군연합번영회장은 군산~영광~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광주 봄꽃 명소는 여기”... 시 '봄꽃 지도' 제작

광주시가 지역 봄꽃 명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봄꽃 지도(사진)를 제작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주 봄꽃 명소 추천 이벤트를 통해 응모자가 직접 찍은 봄꽃 사진과 명소를 추천받아 광주 봄꽃 나들이 지도를 제작했다.

봄꽃 지도 제작은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매해 봄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는 시



민과 여행객들에게 지역 자연관광명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도에는 △벚꽃(운전저수지·우치공

원·수완호수공원) △유채꽃(황룡진수공원) △목련·매화(전남대학교) △장미(조선대학교·풍암호수공원) △이팝(국립5·18민주묘지) 등의 주요 명소가 담겼다.

상춘객이 일상에서 설레는 봄을 만끽하고 추억을 쌓도록 시기에 따라 개화하는 꽃을 배경으로 케이팝(K-pop) 공연과 팝콘나눔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팝 공연은 내달 1일 수완호수공원, 11일 기아챔피언스필드, 22일 상무시민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박상지 기자**